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도쿄해상HD, NTT그룹과 모바일 손해보험사 설립

□ 도쿄해상홀딩스(東京海上HD)는 NTT그룹의 금융관련 자회사인 NTT파이낸스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을 휴대전화의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했다고 1월 22일 발표함.

- 양사는 우선 준비회사인 ‘e-디자인 손보설립준비주식회사(이하 e-디자인 손보)’를 공동 창립하여 빠르면 올해 안을 목표로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 기능을 활용한 모바일통신 기반의 자동차보험을 시판할 계획임.

e-디자인 손보설립준비주식회사 개요

구분	내용
설립일	- 2009년 1월 26일(월)
자본금	- 70억 엔(준비금 포함)
출자사(지분율)	- 도쿄해상홀딩스(85.01%), NTT파이낸스 주식회사(14.99%)
대표자	- 히그레 노리타케(日暮 則武)
사업내용	- 보험업법에 근거한 손해보험사업 면허의 취득 및 관련 신청 수속 - 손해보험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준비
제휴목적	- 도쿄해상홀딩스의 보험인수 및 보험서비스에 관한 노하우와 NTT파이낸스의 모바일 사업과 기술력 등의 노하우를 융합해 NGN(Next Generation Network)과 모바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

자료 : 도쿄해상홀딩스와 NTT파이낸스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요약·정리함.

□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그룹인 도쿄해상홀딩스는 이번 NTT그룹과의 제휴를 통해서 신시장인 모바일 온라인 보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임.

- e-디자인 손보는 NTT 도코모의 인터넷 접속코드인 ‘i모드’를 활용할 계획이며, 판매 대리점의 수수료가 없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정할 수 있는 온라인 손해보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미츠이다이렉트손해보험과 소니손해보험과 같은 온라인 전용 손해보험회사들이 있기는 하지만,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 이번 제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일본 자동차보험 시장이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(도쿄해상홀딩스/NTT파이낸스 주식회사 홈페이지, FujiSankei Business | 1/23)